

불자재소자 문예활동 참회도 하고 상도 받고

신행수기 우수상-창작찬불가 장려상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지금도 마치 날카로운 때의 부리로 가슴을 쪼아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생생하게...’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 서재만씨(39)는 불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면서도 진솔하게 회회한 글을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 본사가 주최한 제5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올해로 수행생활 13년째인 대전교도소 최봉중씨(29). 지난달 17일 조계종 제2회 창작 찬불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합창곡 ‘업(業)’을 직접 작사·작곡해 당당히 수상자 명단에 끼어 최씨는 16세때 무가수로 입소했으나 이곳 재소자 불교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이번 수상은 대전교도소 개소 이래 외부 문화관련 분야 공모에서 첫 입상이어서 불자 수행자들을 더욱 기쁘게 한다.

역시 본사 주최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에 당선된 청송교도소 정호귀씨(40)는 특이한 글을

써오다 이번 수상으로 포교사가 되겠다는 꿈에 더욱 자신을 가지게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알았네’라는 수상작 제목이 말해주듯 그의 글에는 불법에 다가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다. 어느새 글쓰기가 수행생활이 되어버린 정씨는 이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차분히 씻어가고 있다.

최근 전국 40여개 교도소와 구치소의 재소자 불자들이 이처럼 글쓰기, 서예, 음악, 미술 등의 특별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펼치는 것은 불교 문예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예활동은 수행자 자신의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작품을 통해 참회와 거듭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가석방된 이연보(42)씨는 교도소 내에서도 알아주는 명필이었다. 13년 수행생활동안 출근 서예반에서 솜씨를 갈고 닦아 법무부가 주최하는 교정작품전시회에

서 수상을 하는 등 모범적인 수행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됐다. 또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한진태씨(40)도 지난해 감호소내 서예 작품전에서 입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꽃병에 늘 부처님과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으려 몸부림치기에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한편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많은 불자 재소자들이 민원실에 마련된 교정작품전시장에 작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위문법회와 법포시범 불사 등을 읽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 재소자들의 작품엔 잘못으로 접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불자 재소자들의 문예활동 사례를 모으고 작품을 모아 작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계의 지원을 늘려 보다 왕성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자재소자들의 문예활동은 심신을 바탕으로 참회와 거듭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신행활동이 되고 있다. 사진은 여주 신사루를 참배하고 있는 재소자들.

“양천구 체육센터 운영자 교체 재고”

정대스님, 구청에 건의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1월 25일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성문스님) 위탁과 관련, 양천구청에 건의서를 보내 “개관 이후 3억원의 시설투자도 성실한 운영으로 수익금 10여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양천구에 적립했다”며 “운영자를 바꾸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95년 개원 이후 조계종(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 양천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스님은 건의서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권이 반납된다면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한명우 기자

울산에 불교실버타운 생긴다

노인병원·요양시설·영탑공원등 조성

불교 의료법인인 울산 양산군 소재 효성양방향병원(이사장 시연)이 1월 22일 기독교계가 운영해 오던 의료법인 태영재단을 인수하고 불교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대대적인 확충불사에 착수했다.

시연스님은 가자산 자연공원내에 위치한 효성병원에 실버타운 300실을 증축하고 150평 규모의 한국목탑 형식을 띤 3층 법당과 108미터 열반와불좌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만위의 영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하 영묘사립과 테마공원 등을 건설해 1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불교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등을 운영중에 있으며, 104실의 실버타운 등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효성양방향병원은 일단 병원 이름을 효성병원으로 내걸고 정신병신경성 질환이나 당뇨병, 중풍,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 줄 계획이다. 단 입원실 사용료와 식비는 실비를 받는다.

시연스님은 “이 시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53)655-2227

한명우 기자

불교단체 16곳 ‘총선연대’ 참여

재가연대 ‘2000년 총선...’ 포럼 열어

불교계의 2000년 총선 낙선·낙선운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불교단체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르세우기재가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등 5개 단체에서 새 불교운동전국승가회, 새시대불교포럼, 우리는선우, 교수불자연합회, 좋은벗들, 조계사정년회, 자

비전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동문회를 포함한 16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16개 단체는 1월28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2000년 총선’에 따른 불교계공동 대응방안 및 공동조직체 발족에 관한 건’을 주제로 불교재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연대활동방향과 조직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

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1월24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2000년 총선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인 손재재 참여연대 사무처장(재가연대 자문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안에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순수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불교시민단체는 공익적 시민단체인 만큼 낙선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떡국 나누기...민속놀이...효도잔치 교계 설날행사 ‘훈훈하다’

교계 복지관들이 ‘설날맞이 떡 나누기 행사’를 일제히 개최하는 등 민속의 명절 설을 맞아 교계 복지관과 사찰, 신행단체들이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설’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능인·길음·용호·두송·덕유·금오·옥수·백천사회복지관과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교계 20여 복지관들은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지역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영세 가정 등을 대상으로 떡국이나 쌀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들 복지관은 떡국이나 쌀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제공한다.

1월 29~30일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제수용품 알뜰장터를 열었던 천태종 관문사는 3일 조계사와 공동으로 영등포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들에게 떡국을 제공하며, 이에 앞서

2일에는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위문품과 생활비를 전달한다. 소적새마을은 4일 연탄들기, 민속놀이 등의 행사에 이어 5일에는 널뛰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행사를 벌이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편성해 2일과 3일 이틀동안 독거노인에게 ‘문안전화드리기’ 행사를 실시한다.

은평노인복지관은 1일 복지관 경로당 노인과 서당교실 어린이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경로당 잔치’를 개최했으며, 영등포 마을도 1일 거동불편노인들을 대상으로 떡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9일 공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네 노인 5백여명을 초청, 민요와 길놀이 공연 등의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한명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허용하라”

경불련등 불교시민단체 정부에 촉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바르세우기재가연대, 좋은벗들,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1월21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총불교학생회가 티벳의 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것과 관련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 초청을 허용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달라이 라마를 격려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인권·민주정부를 자임하는 국민의 정부와 국민들이 도와야 할 일”이라며 “천만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의 한국 초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의 모든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 주재 티벳명정부 사무소의 카르마 겐렉 대표는 달라이 라마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며칠 간의 한국 방문을 위

해 한국정부에 곧 입국비자를 공식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상부 관계자는 1월 26일 “달라이 라마가 입국 비자 신청을 해 올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지만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 입국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입문’ 2천권 지원

조계종 포교원, 운불련에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출판사가 1월26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 이하 운불련)의 회원교육을 위해 ‘불교입문’ 2천권을 지원했다. 운불련이 최근 회원의 불교적 소양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하고 순회방문 교육을 계획해 이뤄졌다. 김지연 기자

시다르타 건달로 묘사

주간조선에 사과요구

주간조선이 기획 연재물에 시다르타(부처님)의 수행자 시절 이(를)를 폄하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간조선은 1월 27일자 ‘인도, 인도 사람들’이란 기획 연재물을 통해 시다르타를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던 건달”, “수자타가

없었다면 성불은 커녕 들깨마귀의 똥이 났으리라”고 묘사했다. 이를 본 불자들은 담당 기자에게 전자 우편이나 전화로 통해 “불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부처님을 깎아 내리는 기사”라며 성토했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대책위원회도 1월 26일 주간조선에 정정 기사 게재와 재발방지,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재가연대 정보화 무료강의

불교바르세우기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임완숙·임동주)는 7, 9일 2회에 걸쳐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1차 회도 제1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단체 활동가 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불교 시민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오후 6시에는 컴퓨터 사용법을, 9일 오후6시에는 홈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 최용원 불교정보센터 제작자가 강의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진각종 웨비라카드 발급

진각종 총공회(회장 백진호)는 삼성카드사와 제휴, 진각종 웨비라카드를 만들어 종도들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에 나섰다. 1년간 년회비가 면제되는 진각종 웨비라카드는 다른 신용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카드와 관계 없이 보너스포인트가 적립되며, 특히 사용금액의 일부가 신도회 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밖에 할인혜택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경숙 기자

불교회·불자가수회 ‘결연’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관수)와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가 1월 26일 자매결연을 맺고 동반활동을 다짐했다. 불교방송 3층에서 열린 이날 합동법회에서 정관수 회장은 “대한불교제과인회와 불자가수회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된 곳에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명 졸업·41기생 모집중>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패의식(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법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12주)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수진 권단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중(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 가능

원서교부

-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 대구 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 법사교시 경우 법사호 수여
-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 포교실습 지방자치법회처 제공
-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